

지역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
탐색

박 혜 숙 (Park, Hye-sook)*

(E-mail : parkhyes@honam.ac.kr)

논문접수일 : 2009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8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Michigan State University

현직: 호남대학교 전임강사

지역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 탐색**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한 지역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서의 만족도에 미치는 여러 관련 변인들(성별, 자기조절학습전략,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지각된 한국어 수준, 지각된 스트레스수준)과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유학생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와 유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대학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자기조절학습전략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만족도를 매개하였고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의 인지는 자기조절학습전략과 만족도를 정적으로 매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다중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부모지원, 자기조절학습전략,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의 인지는 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학생이 지각하는 한국어 수준은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의 인지 및 만족도와는 부적관계가 있었다.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의 인지는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대학에서는 유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역량강화와 내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관한 교육지원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추후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중국인 유학생, 자기조절학습전략, 스트레스, 한국어 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 본 연구는 호남대학교 2008학년도 교내 연구공모지원을 받아서 완성한 논문이다.

I. 도입

교육의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김화영 2005). 또한 학생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내 대학들은 외국유학생 유치에 절실한 상황에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간주된다.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국제화 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외화유입은 물론 국내 대학생들에게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4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63,952명이며 그 중 아시아계 학생들은 59,375이다. 1992년 중국이 개방정책을 시행한 이래 중국인 유학생은 44,746명에 이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위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온 경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이 국내 대학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관련 변인에 관한 기술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이 교육의 수요자이며 소비자로 간주되어가고 있는 이 때, 대학에서의 학습자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의 질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예, Tinto 1975)에 의하면 학생들의 대학교육 지속가능성(retention)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

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는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유학경험은 중국에 귀국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추후 유학생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체류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다수의 연구는 기술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여러 변인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서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상대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유학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생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비교적 단기간 머무르는 사람들로서 심리적 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응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이동하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달성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Ward, Bochner & Furnham 2001).

교육부 연구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국제관계에서의 영향

력 확보 및 관계국과의 적극적인 우호, 협력관계 유지·발전 등의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엄혜경 2003).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내 교육기관의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유학생 교류의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수주의 약화, 외국 유학(조기유학포함) 등으로 인한 국내 대학 입학생 수 감소를 비롯하여(이익수·지봉구 2006) 교육수요자의 절대 수 감소와 대학기관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지방소재 대학은 대학의 '동공화'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이관식 2008).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예측한 대로 이미 대중화 단계를 넘어 대학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여(이재봉 2000), 경쟁력이 없는 경우의 대학은 학생의 선발권을 상실하고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르렀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경제적 위기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선택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크며, 각 대학도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경제 긴축 및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대학입학을 돕는 사업과 학생을 유치하고 관리를 도맡아 주는 전략적 학생 관리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McDonough 1994; Kotler & Fox 1995; Hossler, Schmit & Vesper 1998; 손순중 2002 재인용).

국내 대학도 부족한 대학정원을 충원하고자 동남아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외국 유학생의 유치는 단순한 외화획득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생이 세계적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자국에서의 홍보대사 역할도 차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의 일부 대학에서 내국인 고등학교 졸업생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해외 유학생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대학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외 유학생의 유치는 대학의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대학주변의 주민들에게도 추가적인 소비행위

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이익수·지봉구 2006).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생들의 문화적 및 대학생활 만족도면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허춘영·김광일·이장한 1999). 지속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유학생들의 만족도와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자기조절학습전략, 한국어 수준,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성별,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중심으로 만족도에 미치는 여러 변인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변인

1) 언어 능숙도

국내 외국인들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특히, 한국인 친구가 없는 것, 고향에 대한 향수, 고독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학습자로서의 유학생은 학업에 대한 문제, 언어능력 문제를 비롯하여 모국의 교수방법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행정상의 문제, 학사일정에 관한 정보습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Opper, Teiche, & Carlson 1990). 그 중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하여 언어 능숙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장연(2005)의 연구에 의하면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숙달과 생활습관간의 상관계수는 0.32로 나타나, 한국어 수준이 높으면 생활습관 면에서 한국문화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 학습기간과도 관련이 있으며 한국어 수준은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환경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연구자들(Lazarus & Folkman 1984; Philips, 1993; 정동화 2009 재인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첫째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생물학과 의학에서 사용되는 환경적 자극이나 요구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상태를 일컫는다. 둘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물리적인 위협이나 심리적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조건으로 정의한다. 셋째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스트레스를 정의한다(정동화 2009).

본 연구에서의 세 번째의 정의에 기인하여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교류에서 불균형으로 야기된 생리, 심리,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고자 한다. 유학생들은 문화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스트레스는 유학 온 국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육 연령, 성별, 인지적 유형, 다중문화 경험 유무에 따라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이 다르다고 한다(Lazarus & Flokman 1984; 장연 2005 재인용).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다중문화경험이 높을 경우, 그리고 사회적지지를 받을 경우는 낮은 스트레스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사회적지지만 사람들이 보호, 애정,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의사소통의 연결망에 속해 있다고 믿게 해주는 정보의 일종이라고 한다(Cobb 1976). 카플란, 캐설과 고아(Kaplan, Cassel, & Gore 1977)는 가족과 공동체의 지지적 관계는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옹(Ong 2000)은 사회적인 유대관계, 사회적지지, 유학생의 만족, 심리적인 적응을 예측한다.

프르카와(Furukawa 1997)는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감소하며, 한닝간(Hanningan 1997)은 사회적지가 심리적인 만족과 행복한 생활 영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가 우울로 전이가 되는 것을 완충시킨다. 중국

지역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 탐색 99

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의 적응의 지표중의 하나가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으나(엄혜경, 2003)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생활만족도 및 한국인에 대한 태도

만족이란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인 느낌으로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성취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상태를 말한다(Burr et al. 1979). 캠벨(Campbell 1975)에 의하면, 만족감이란 어떤 표준에 의해 삶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상황인 열망과 개인이 향유하는 상황인 성취 사이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 생활만족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이며, 행복에 대한 체콜라(Chekola 1975)의 정의와 같이 개인 생활의 포부와 목적의 조화적인 만족을 의미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찾아볼 수 없는 위계질서, 상하관계, 남존여비, 예의존중 등이 중시되는 한국사회 적응에 힘들어한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길수록 행복척도가 높게 나타나며 문화 적응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만족도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김재우 2005).

생활만족도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문화적응 유형에 차이가 있었고,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등록 이후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선택에 대한 확신이 달라지며(손순중 2002), 이는 추후 동료 후배들에게 특정 대학과 국가에 대한 추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자기조절학습

정보화 및 평생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자기조절능력을 갖춘 학습자의 양성은 교육의 주목표가 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생의 학습능력이나 환경이 고정된 실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학습을 위한 환경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과정과 반응이

100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집

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Zimmerman 1990). 또한 짐머만(Zimmerman 1986; 1990)에 의하면 비록 연구가들의 이론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조절 학습자는 초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행동면에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라고 한다. 즉 초인지적 측면에서 자기조절학습자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거나 조직화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학습과정 중 여러 시점에서 자기를 평가한다. 이런 과정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의식적이며, 자기결정적으로 되도록 유도한다. 즉 동기조절전략은 학생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학업과제를 완성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이다.

행동과정에 있어서, 자기조절 학습자는 학습의 최적화를 위한 환경 선택 및 환경을 형성하며(Zimmerman & Marinéz-Pons 1986;1990), 자기를 스스로 강화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독립적인 학습력이나 학습기술측면에서 선진국 대학생들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한다(변영계·강태용 2001).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Learning to learn)을 학습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스스로 평생학습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기술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Devien 1987). 이런 면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국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전략과 대학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다른 변인간의 관계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개인특성 변인(자기조절능력, 한국어 수준, 지각된 스트레스수준, 타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3) 유학생의 지각한 한국어 수준과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자기조절학습전략, 부모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어떠한가?

(4) 대학생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한국어 수준은 어떠한가?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높을 경우 학생이 지각하는 한국어 수준이 높은가? 아니면, 한국어 수준이 높을 경우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높은가?)

III. 연구방법

1. 대상

2007년도 2학기에 광주광역시 소재 A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그 대상이다. 2007년 11월 말부터 12월에 수업 전과 후에 중국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전공교과 교수 및 어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도움으로 수업 전 혹은 수업직후에 실시하였다.

해당 대학에서는 2007학년도 2학기에 전체 353명의 학부생(어학과정 포함)이 수학하고 있었으며, 그 중 남학생은 187(46.9%)명, 여학생은 166명(43.1%)이 그 대상자이며, 이 중 1학년 72명(19.9%), 2학년 181명(50.1%), 3학년 56명(15.5%), 4학년 14명(5%), 그리고 어학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30명(8.3%)이었다. 이 중 206명(58%)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사용가능한 자료는 190명(54%)으로 남학생 82명(43.2%) 여학생 108명(56.8%)이었다. 1학년 44명(23.2%), 2학년 108명(56.8%), 3학년 34명(17.9%), 4학년 1명(0.5%)이었으며, 학년정보가 없는 경우가 3명(1.6%) 포함되어 전체 설문 참여자의 비율 순서는 전체대상자의 학년 비율과 비슷하였다.

이들 중 한국어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운 경우가 대부분(90%)으로 6개월 미만은 48명(28.1%),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82명(43.2%), 그리고 1년 이상 41명(21.6%)이었다.

2. 설문문항

본 설문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을 이해하고자 구성된 설문으로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교수의 도움으로 한글로 작성한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인 유학생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친 후 최종본을 만들었다. 설문 문항은 성별, 학년, 유학신분, 유학목적, 학습활동, 여가활동, 한국에 머문 기간, 학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한국어 실력(수준) 및 한국어 학습경험, 대학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한국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수업경험, 자기조절학습전략, 유학목적,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문항이 선다형 및 라이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표1참조>).

부모지원관련 문항은 부모님의 학생이해정도, 대화빈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모님과 대화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조절학습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심리 측정 특성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동기조절(Pintrich, Smith, Garcia & McKeachie 1993) 검사 도구를 참고하여 자기조절학습전략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그 중 5개의 문항인 시간관리능력, 효과적인 기억법, 집중전략, 장소선택, 필기능력을 사용하였다. 학습자가 평가하는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능력으로 구성되었다.

중국 유학생이 인지하는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는 한국인이 타문화(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타인의 사고방식존중, 타문화존중,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학습 관련 스트레스는 전공, 한국어 관련, 수업내용이해, 숙제수행, 수업진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교수, 조교·직원, 한국 학생들의 유학생 배려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대학에서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각각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분포로 간주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주성분 분석과 경로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표본크기가 작음으로 인하여 여러 변인을 의미있게 축소하기 위함이며, 경로모형은 한 모형에서 각각의 변인과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변인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SPSS 및 AMOS V.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VI. 연구결과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개의 문항을 하나의 성분으로 묶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성분과 해당 문항들 간의 적재량은 0.5가 넘었으며, 이들 문항들의 해당 성분에서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alpha)는 0.6이 넘어서 각 문항을 총합한 평균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표 1> 참조).

중국 유학생은 평균 이상의 만족도(3.72)와 자기조절학습전략(3.66)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지원(4.2)은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스트레스 수준(3.1)은 보통이었다. 자신이 평가하는 한국어 실력(2.8)은 보통 이하였다(<표 2 참조>). 읽기능력(2.97)에 비해 말하기능력(2.76)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3>은 새로이 생성한 변인들의 상관관계이다. 만족도와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만족도와 자기조절능력과의 상관은 각각 0.59와 0.43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 변수 특성

변수	문항 수	문항	alpha	분산 (%)	평균	표준편차
부모지원	3	부모님의 학생 이해정도, 부모님과과의 빈번한 대화, 고민에 대한 상의	0.83	0.72	4.21	0.83
자기조절 학습전략	5	시간관리능력, 효과적인 기억법, 집중전략, 공부장소선택, 필기능력	0.84	0.62	3.66	0.72
한국어 수준	4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0.89	75.66	2.87	0.70
한국인의 타문화 태도	4	중국문화이해, 타인의 사고방식존중, 타문화존중, 한국에 대한 인상	0.83	67.05	3.25	0.67
스트레스	6	전공공부관련, 한국어공부, 한국어실력관련, 강의내용이해, 기일 내에 숙제수행, 수업진도빠르기	0.83	53.8	3.14	0.72
대학생활 만족	4	한국학생의 친절도, 학과교수의 배려, 교직원친절도, 대학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0.61	47.02	3.72	0.59

<표 2> 학생이 지각하는 한국어 수준

한국어 수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말하기	173	1	4	2.76	0.80
듣기	173	1	4	2.88	0.78
쓰기	173	1	5	2.88	0.83
읽기	173	1	5	2.97	0.81

<표 3>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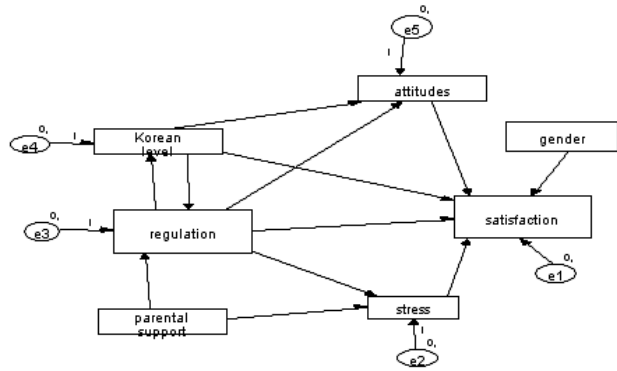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⑥	⑦
① 부모지원	0.36 **	0.19 *	0.14	-0.13	-0.11	0.22 **
② 자기조절	1.00	0.32 **	0.26 **	-0.01	-0.34 **	0.43 **
③ 한국어 수준		1.00	-0.11	-0.08	-0.21 **	0.08
④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1.00	-0.03	-0.08	0.59 **
⑤ 성별(남)				1.00	0.00	-0.09
⑥ 스트레스					1.00	-0.15 *
⑦ 대학만족						1.00

주)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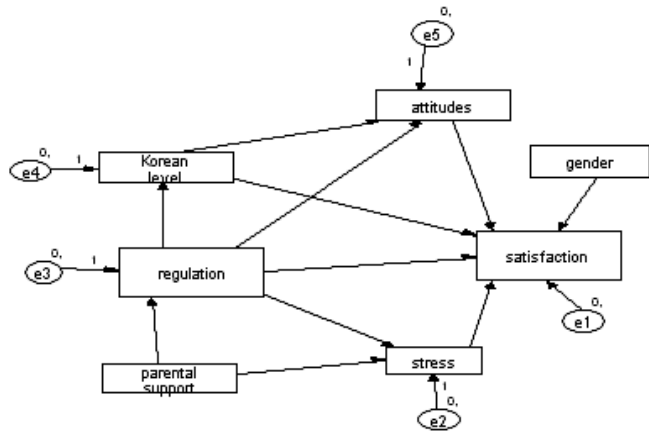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그림1]과 [그림2]의 두 모형을 만들었다. 두 모형의 차이점은 한국어 수준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두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수준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평가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 및 평가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χ^2 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에 본 연구에선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독립모형에 비해 이론 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가를 볼 수 있는 상대적 적합도인 Tucker-Lewis Index(TLI)나 Comparative Fit Index(CFI)를 기준으로 하였고(Klein, 1998, 128-9).

간명성을 고려하고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하였다. TLI나 CFI가 0.9이상이면 양호하고, RMSEA도 0.05이하이면 모형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TLI는 Non-normed fit index(normalize를 하지 않았음)이기에 1이 넘을 수도 있으며, 모형에서는 적합도가 매우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홍세희 2007).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두 모형은 모두 매우 양호하나, 간명성을 기준으로 [그림2] 비순환모형(recursive model)을 택하였다(df=1, $\chi^2<3.84$).



[그림1] 순환모형(non-recursive model)



[그림2] 비순환모형(recursive model)

우선적으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중국인 유학생이 평가하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이었고(=0.52), 그 다음이 자기조절(=0.27)이었다. 자기조절은 부모의 지원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부모지원 * 자기조절 * 만족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0.36*0.27= 0.062). 자기조절과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한국인의 태도)는 부모지원과 만족도와의 관계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지원 * 자기조절 * 한국인의 태도 * 만족도와의 3중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효과크기, 0.36*0.33*0.52=0.098).

한국인의 태도는 한국어 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한국어 수준 * 한국인의 태도 * 만족도의 효과크기는 부정적이었다. 즉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태도 평가는 낮았으며(=-0.22),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역시 부정적이었다(-0.22*0.52=-0.115). 그러나 부모지원, 성별, 한국어 수준, 스트레스 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조절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는 낮았으나,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6, 7 참조>).

<표 4>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DF	χ^2	p	TLI	CFI	RMSEA
순환모형	8	7.248	0.510	1.015	1.000	0.000
비순환모형	9	8.552	0.480	1.008	1.000	0.000

<표 5> 최종 모형 요약

		표준화 계수	계수	S.E.	C.R.	P
자기조절	<- 부모지원	0.36	0.32	0.06	5.30	***
	--					
한국어수준	<- 자기조절	0.32	0.31	0.07	4.39	***
	--					
한국인태도	<- 한국어 수준	-0.22	-0.21	0.07	-2.95	0.003
	--					
한국인태도가	<- 자기조절	0.33	0.30	0.07	4.51	***
	--					
스트레스	<- 자기조절	-0.33	-0.33	0.07	-4.47	***
	--					
스트레스	<- 부모지원	0.02	0.01	0.06	0.21	0.832
	--					
만족도	<- 한국인태도	0.52	0.46	0.05	8.86	***
	--					
만족도	<- 자기조절	0.27	0.22	0.06	4.00	***
	--					
만족도	<- 부모지원	0.03	0.02	0.04	0.48	0.635
	--					
만족도	<- 성별	-0.07	-0.08	0.07	-1.28	0.202
	--					
만족도	<- 한국어 수준	0.03	0.02	0.05	0.44	0.661
	--					
만족도	<- 스트레스	-0.02	-0.02	0.05	-0.32	0.749
	--					

주) 한국인 태도는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일컫는다.

<표 6> 전체효과

변수	부모 지원	자기 조절	한국어 수준	스트레스	성별	태도
자기조절	0.362	-	-	-	-	-
한국어 수준	0.115	0.318	-	-	-	-
스트레스	-0.105	-0.333	-	-	-	-
한국인의 태도	0.094	0.26	-0.224	-	-	-
만족도	0.18	0.421	-0.089	-0.019	-0.07	0.517

주) 본 표에 사용된 숫자는 표준화된 계수이다.

<표 7> 직접효과

변수	부모 지원	자기 조절	한국어 수준	스트레스	성별	한국인의 태도
자기 조절	0.362	-	-	-	-	-
한국어 수준	-	0.318	-	-	-	-
스트레스	0.016	-0.333	-	-	-	-
한국인의 태도	-	0.331	-0.224	-	-	-
만족도	0.028	0.272	0.027	-0.019	-0.07	0.517

주) 본 모형은 표준화된 자료다.

<표 8> 간접효과

	부모 지원	자기 조절	한국어 수준	스트레스	성별	한국인의 태도
자기조절	-	-	-	-	-	-
한국어 수준	0.115	-	-	-	-	-
스트레스	-0.12	-	-	-	-	-
한국인의 태도	0.094	-0.071	-	-	-	-
만족도	0.152	0.149	-0.116	-	-	-

주) 본 모형은 표준화된 자료이다.

V. 요약 및 논의

국내 지역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성별, 자기조절, 부모지원,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지각된 한국어 수준,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유학생

들이 느끼는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다. 두 번째로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또한 부모지원, 자기조절,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 통계적 및 실제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부모의 지원과 자기조절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의 지원, 자기조절,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인지하는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는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유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한국어 수준과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평가와의 관계는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경우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평가가 낮았으나, 그 이유가 한국에서의 유학기간이 길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낮아졌는지 혹은 그 외의 이유때문인지에 대하여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자기조절과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는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유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역량강화와 국내 대학생들의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관한 교육지원을 고려해 볼 만하다. 중국인 유학생을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있는 학습자로 양성하는 것은 해당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로 인하여 추후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가 특정지역 소재의 한 대학에 유학 온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아직까지 중국유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지역별 유학생들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에 해당지역의 대학과 유사한 대학에 일반화할 수 있으나, 국내 대학 전체에 일반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아직 유학생들의 분포가 고르지 않은 관계로 유학생들의 국내 해당대학에서의 체류기간, 한국어 수업기간, 학년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 대학만족도는 학업관련 만족도이고 특히 학생, 교수, 교직원의 관심과 배려,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사용한 문항을 총합을 사용하여 살펴보았기에 시설측면에서의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런 이유로 만족도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부모의 지원측면 만을 주로 보았으며, 표본이 해당대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나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융합형 구조방정식(hybrid models with structural and measurement component, Klein 1998, 244)을 사용할 때 가능한 측정의 오류를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가 단순한 상관관계나 개별 변수에 대한 기술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여러 변인들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추후에는 좀 더 종합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의 여러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모형과 경로모형을 혼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동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대학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 연구수행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2008, '08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이상) 통계
http://www.mest.go.kr/ms_kor/inform/info_data/cooper/1256540_8477.jsp (2009.3.18 조회).
- 김재우 2005, “제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영, 2005,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계·강태용, 2001, “대학생의 학습 기술훈련방안 탐색”, 『고등교육연구』, 제12집, 95-116.
- 손순중, 2002, “지방사립대학 신입생의 대학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제13권, 2호, 49-73.
- 엄혜경, 200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식, 2008, “중국인 유학생의 특성과 한국어 학습실태 조사”, 『어문논문』, 제36집, 319-343.
- 이익수·지봉구, 200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제29집, 5호, 437-453.
- 이재봉, 2000, “대학교육의 질 관리”, 『고등교육연구』, 제11집, 109-128.
- 장연, 2005,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숙달수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화, 2009,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불안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의 효과”, 『교육문제연구』, 제 33집, 221-244.
- 허춘영·김광일·이장한, 1999,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제18집.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교육심리 연구방법

- 론 워크숍 자료집, 연세대학교.
- Burr, W. R., Leigh, G., Day, R., & Constantine, J.,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Free Press.
- Campbell, A., 1975, “Subjective measur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11, 117-124.
- Chekola, 1975, “The concept of happiness. ”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Vol 35, 75-665.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metric medicine, Vol 38, No 5, 300-314.
- Devine T. G., 1987, Teaching Study Skills. Boston: Allyn and Bacon, Inc.
- Furukawa, T., 1997, “ Sojourner readjustment: Mental health of international students after one year’s foreign sojourn and its psychosocial correlat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Vol 185, 263-268.
- Hannigan, T., 1997, “Homesickness and acculturation stress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In M. A. L. van Tilburg & A. J. J. M Vingerhoets (Eds.), Psychological aspects of geographic movement. Tilburg, Netherlands: University of Tilburg Press.
- Hossler, D., Schmit, J. & Vesper, N., 1998, Going to college: How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factors influence the decisions students make. U.S.A: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Kaplan B.H., Cassel J. C., & Gore,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Vol 15, 47-58.
- Klein,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 modeling, U.S.A: Guilford Press.
- Kotler, P., & Fox, K. F. A., 1995, Strategic marketing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cDonough, P. M., 1994, "Buying and Selling Higher Educati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College Applica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65, No. 4, 427-446.
- Ong, S. J., 200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ocial support scale for sojourners-The index of sojourner social support (IS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Opper, S., Teicher, U., & Carlson, J., 1990, Impacts of study abroad programmes on students and graduates,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Phillips, B. N., 1993,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tress in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Brandon, VT: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Co. Inc.
- Pintrich, P. R., Smith, D. A. F., Gracia, T., & McKeachie, W. J., 1993, "Predictiv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3, 801-813.
- SPSS (2003). SPSS 12 for Windows [Computer software]. U.S.A: SPSS Inc.
-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5, 89-125.
-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al shock. UK: Routledge.
- Zimmerman, B. J., 1986,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307-313.
- 1990, "Self-regulating academic learning and achievement: The emergence of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 2, 173-201.
- & Martinez-Pons,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23, 614-628.
- & Martinez-Pons,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2, 51-59.

Correlates of th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Park Hye-sook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various factors (i.e., gender, self-regulation strategies, parental emotional support, Koreans' attitudes toward other cultures, their perceived Korean language skills/competence, and their perceived stress level) that are assumed to be related to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life using path models. One hundred ninety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a local Korean university were surveyed on their college life.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at survey showed that parental support and self-regul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correlations with college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 and three way interaction effects. The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al support, self-regulation, and Koreans' attitudes towards other cultures were positive.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tudents' perceived Korean language skill level and their evaluation of Koreans' attitudes toward other culture on satisfaction with life was negative. Self-regulation mediates the effects of Koreans' attitudes toward other cultures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it also mediates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Since

self-regulation and Koreans' attitudes toward other cultur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students' satisfaction, by enhancing these factors via education, it is likely that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universities would be enhanced. Utilizing this information would benefit universities that want to recruit more Chinese students.

Keywords: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self-regulation strategies, stress, perceived Korean skills, competence, students' life satisfaction with college